

금속노동자 합성을 평화통일 합성으로

11일, 금속노동자 자주통일 결의대회 열어...판문점 선언 이행, 남북 제조노동자 교류 성사 다짐

금속노조가 8월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남문 주차장에서 ‘금속노동자 자주통일 결의대회’를 열고 ‘판문점 선언 이행과 남북 제조노동자 교류 성사’를 다짐했다. 이날 월드컵경기장에서 ‘판문점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가 열렸다.



햇볕 속에서 진행한 노래패 ‘우리나라’의 대회 노래공연은 조합원과 가족들의 흥을 북돋웠다.

이번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에 민주노총 대표팀으로 출전한 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강상호 지부장은 투쟁사에서 “이번 통일축구대회에 기아차지부가 대표팀으로 뛰게 돼 무한한

김호규 노조 위원장이 대회사를 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오늘 조합원들이 흘린 땀방울은 자주통일의 큰 물줄기가 되고, 오늘 외치는 투쟁 소리는 평화통일의 큰 합성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금속노조가 민족해방, 노동해방을 위해 나아가자”라고 결의를 높였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연대사에서 “1,700만 민중이 촛불을 들고 불의한 정권을 교체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거리와 골목에서 절규하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이상진 부위원장은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면 73년 분단체제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재벌들의 낡은 체제는 무너질 것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금속노동자가 주역이 되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무더운 날씨에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조합원과 가족들이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 모였다. 뜨거운

영광이다”라며 결의 발언을 시작했다. 강상호 지부장은 “오늘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는 통일을 바라는 민중과 금속노동자의 힘으로 열게 됐다. 통일을 앞당기는 데 금속노동자가 앞장서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주통일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평화의 문, 통일의 문’이라고 쓰인 풍선문을 통과하는 상징의식을 벌였다. 조합원과 가족들은 풍선문을 지나 경기장에 입장해 개막식과 통일축구대회에 참가했다.

“문재인 대통령 대답 들으러 간다”

노조, 죽지않고 일할 권리 쟁취 청와대 앞 24시간 농성 돌입... “무력화한 산업재해 예방제도 바로 잡아라”

금속노조가 8월 9일 산업재해 예방 제도 개선을 위한 농성투쟁 장소를 청와대 앞으로 옮기고 24시간 집회와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이침 점심 재력 선전전과 결의대회, 야간 문화제 등을 벌이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청와대에 직접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4월 11일부터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위험성 평가와 공정 안전 보건 제도 노동자 참여 보장 ▲중대 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및 해제 지침 준수와 사업주 결탁 고용노동부 관료 징계 ▲직업환경검정·특수건강검진 대상 물질 확대 ▲노동자 생존 안전대책 없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노동안전보건실은 “노동부가 의지만 있다면 즉각 제도를 정비하고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고 있다”라며 “국민에게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화학섬유연맹, 화학섬유식품노조, 건설노조, 민주일반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농성 연대성명을 발표했다. 이 노조와 단체들은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를 외면하는 무능한 노동부를 비판하고 금속노조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쌍용차 짜고 군사작전처럼 노조파괴 실행

쌍용차범대위, 경찰청장 면담 기자회견... “노조파괴 당사자 경찰이 철저하게 조사하라”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복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 범대위)가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쌍용자동차와 이명박 정부가 공모해 노조를 파괴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외해 비밀문건’ 작성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와 쌍용차범대위는 8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쌍용차 회사-정부 공모 노조외해 비밀문건 철저히 조사, 책임자 처벌, 민갑룡 경찰청장 면담요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쌍용자동차가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작성한 100여 건의 문건을 발견했다. 쌍용차와 정부가 파업을 유도하고, 경찰이 폭력진압을 벌여 노조를 외해시키는 시나리오를 담은 문건이다. 정부와 쌍용자동차가 공모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부정하고 노조파괴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서 “국가가 쌍용차 노조파괴를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군사작전처럼 실행했다. 시나리오 작성자 처벌과 정부 책임자의 사과가 필요하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쌍용차 사태의 해법을 제시하고 손배가입료를 철화해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도 모자란 상황이다”라고 국가의 책임을 지적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30명째 희생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현실을 강조하며 정부가 쌍용차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쌍용차 희생자인 고 임무창 조합원 노제 때 조화 대신 올린 강이지

폴을 손에 들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쌍용차 살리기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굴러가게 해야 한다. 정부, 회사, 기업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고자 원직복직의 길을 찾자”라고 호소했다.

김득중 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문건 내용에 따라 파업 참가자 외에, 경찰특공대 살인진압, 공적 자금 투입, 민주노총 탈퇴가 이어졌다. 우리는 아직도 2009년 상황을 잊지 못한다”라며 “이 문건에 따른 노조파괴로 지금까지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묻으면 안 된다. 지금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조사다”라고 지적했다.

쌍용차 범대위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찰청에 들어가 임호선 경찰청 차장과 면담했다. 대표단은 경찰이 쌍용차 노조외해 비밀문건의 작성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18만 금속노동자가 든든한 뒷배가 되겠다”

8일, 현대모비스 충주지회 응원 문화제 ... “민주노조 만드는 길, 내 삶의 주인 되는 길”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민주노총 충북지역 본부가 8월 8일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앞에서 ‘2018 임단투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금속노동자 한마당’을 열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합원들과 노조 조합원들이 현대모비스 충주지회 창립 한 달을 축하하고 지회 조합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투쟁문화를 준비했다.

산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문화제를 시작하며 “금속노조는 전국의 완성차, 부품사 등

수많은 제조노동자가 함께 싸워 만들어온 조직이다”라며 “망설이지 말고 함께 싸우자. 금속노조의 18만 조합원들이 현대모비스 충주지회 조합원들의 든든한 뒷배가 돼주겠다”라고 격려했다.

지역 노동자들도 민주노조 조직의 첫발을 내디딘 현대모비스 충주지회 조합원들을 응원했다.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노동조합을 잘 몰랐던 노동자들이 선전과 조직을 거쳐 드러낼 수 있을 규모로 조직을 키워냈다”라며 “민주노조는 내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만

드는 조직이다. 금속노조로 뭉쳐 우리 조합원들이 현장의 주인이 되자”라고 당부했다.

김민우 현대모비스 충주지회장이 연단에 올라 “세월이 흐르고 사장이 세 번 바뀌었지만 내 임금은 그대로였다. 금속노조를 만나고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며 “덕분에 많은 사람과 함께하게 됐고, 현대모비스 충주지회의 깃발을 꽃을 수 있었다. 최선을 다해 깃발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했다.